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학교 위치는 나름 이동하기 좋은 곳에 있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이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좋았다. 학교가 큰 편은 아니라 돌아다니는데 힘들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했다. 또한 오크나겐 학교 학생들은 조용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았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순천향대 한국 학생들과 현지 선생님 한 분과 진행하였다. 외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줄 알았던 나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현지 선생님이 영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수업은 매일 아침 선생님의 방식으로 짝공을 지어서 같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종목표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발표 연습을 하였다. 캐나다의 화폐, 스포츠, 음식, 문화 등을 배우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프리젠테이션 조를 짜서 발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기도 하였다. 또한 내 프리젠테이션 주제가 KOREA &amp; CANADA'S HOLIDAY 였는데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을 10개 만들어서 오크나겐 컬리지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고 다녔다. 선생님은 우리가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이외에도 캐나다에 관한 설문지를 나눠주시고 한 질문당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빨리 채워오는 미션을 내주셨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영어로 질문해야 해서 쑥스럽고 말 걸기도 망설여지기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말하는 내 자신이 신기하였다. 수업은 거의 참여식으로 이루어져서 스피킹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리스닝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월, 수, 금은 점심이후에 따로 activity를 했는데 모든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했던 시티투어에서 소규모의 와이너리를 갔는데 비록 겨울이라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은 못 보았지만 맛있는 와인도 맛보고, 겨울만의 풍경을 구경해서 좋았다. 겨울이라 겨울 액티비티를 많이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실버스타에서의 스키타기이다. 스키장에 간 날 마침 함박눈이 내려 한국 스키장과는 다른, 진짜 눈에서 스키타기를 경험해 보았다. 스키를 처음타서 외국인 현지 강습 선생님에게 강습을 2시간 받고 점심이후에 자유롭게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스키복은 홈스테이에서 빌려 주셔서 준비를 안 해 갔고, 고글과 장갑, 워머 정도만 가져갔다. 또한 켈링도 켈링장에 가서 강습을 받았는데 티비로 볼 때는 쉬워 보였던 것이 스톤도 무겁고 아이스링크도 미끄러워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강습이후에 팀을 이뤄서 미니 경기도 하고 재미있었다. 마지막으로 킬로나의 유명한 하키 팀인 ROCKETS의 홈 경기가 열려서 하키 관람을 하였는데 선수들도 멋있고, 경기진행도 빨라서 더 집중해서 관람하였던 것 같다. 하키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 관심을 가졌던 적도 없고,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보다 춥다고 해서 두꺼운 옷을 가져갔지만 막상 가니 한국 날씨랑 비슷하였고 어떤 날은 한국보다 더 따뜻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눈이 올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걷기도 힘들고 무지 추웠다. 눈 올때를 대비해서 운동화 말고 방수되는 따뜻한 신발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일단 겨울이라 그런지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어두워지기 시작해 6시면 해가 진다. 하지만 생각보다 치안은 안전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밤에 집에 올 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내가 머문 홈스테이 가정은 집안 규칙이 매우 엄격해서 홈스테이 학생이라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식사 후에 간단한 설거지와 바닥 쓸기, 주말에 화장실 청소와 복도 청소 등 다소 과한 집안일을 요구해서 현지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행동을 해서 홈스테이에 대한 나의 상상을 무너뜨렸다. 또한 캐나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겠지만 샤워를 10분이내에 해야 돼서 그 점이 적응되지 않아 꽤나 고생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저녁에 화장 클렌징을 하고 세수를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홈맘이 계속 주의를 줘서 물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이런 것들 외에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홈맘이 주로 샌드위치나 전날 먹었던 저녁음식을 싸줘서 그걸 먹었고, 저녁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외식을 했던 것 같다. 홈맘이 음식을 못하거나 그런건 아니었지만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고, 킬로나에 유명하다는 음식점에 가보고 싶어서 의도치 않게 외식을 자주 했던 것 같다. 음식점은 친구들이랑 가서 먹고싶은 것을 다 시켰을 때 보통 만오천원 정도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좀 뷔페나 비싼 곳을 가면 팁 포함해서 이만원에서 이만 오천원 정도 나왔던 것 같다. 팁은 10% ~ 15% 정도 주면 된다. 캐나다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있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아침에 등교할 때는 홈맘이 출근하는 시간이라 비슷해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셔서 편했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는 버스 시간대가 애매해서 자주 걸어갔다. 시내 교통은 버스 배차 간격이 낮에는 30분 간격이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와서 불편했다. 눈 오는 날에는 버스가 안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좀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비용(쇼핑, 교통비, 식사)	780,000원	
합계	2,280,000 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날씨는 생각보다 안 추웠지만 눈이 올 때는 정말 추웠다. 눈이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오니 방수 되는 신발이 필요하고, 장갑은 필수로 꼭 필요하다. 음식점을 추천하자면 오차드 파크 몰 근처에서는 TOKYO라는 일식 뷔페를 꼭 가보길 추천한다. 가격은 비싸지만 퀄리티와 맛이 정말 끝내준다. 다운타운에서는 켈리오브라이언에서 파초와 파스타를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만약 술을 마신다면 신분증이 2개 필요하니 주의하길 바란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단기 어학연수인 만큼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오리라 마음먹었지만 막상 가니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아 본인은 꽤나 고생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생활이 적응이 되니 자연스럽게 조금씩 입이 떨어졌다. 그리고 진짜 영어로 입이 틀 때 쯤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아쉬웠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3주이지만 그 3주 동안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단기 어학연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 같다. 처음 서양권으로 어학연수를 온 거라 모든 환경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어서 초반에는 순천향대 친구들과 같이 다니고 했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시내 구경을 하거나 쇼핑을 하였는데 그 때 영어를 더 많이 썼던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같이 홈스테이 했던 한국인 유학생 언니가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줄임말이나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단기 어학연수인 만큼 영어 실력이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지만 리스닝과 스피킹만큼은 그래도 조금 향상시켰던 것 같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보니 내가 문법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문법과 스피킹에 좀 더 치중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킬로나에 있는 동안 느꼈던 것은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는 것이다. 겉모습도 내추럴하게 다니고, 외모적으로 가꾸는 것 보다 자신만의 취미(특히 수영, 조깅 등 몸을 쓰는 운동)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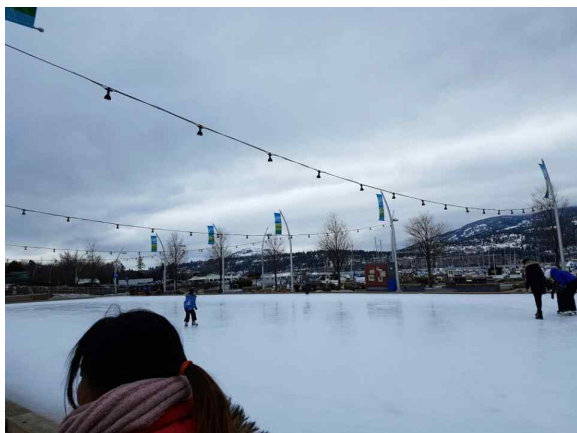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ROCKETS 하키 관람



매주 수요일마다의 chicken wing's day



스케이트



컬링



눈 온날 집앞 풍경



오크나겐컬리지에서 단체사진